

‘AI자율제조’ 전문기업 30곳 찾는다 2027년까지 200개 프로젝트 추진

산업부, AI·로봇 전문기업 지원
‘AI자율제조 미니 프로젝트’ 참여
제조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2026년부터 제조현장서 적용

자동차,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철강 등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프로젝트에 민간 AI 전문기업들이 본격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AI 자율제조 네트워킹 데이’를 열고 제조 현장의 AI 전환 프로젝트 지원 제도를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100개 이상 기업, 연구기관이 참여했으며, 특히 AI와 로봇 기업들은 회사와 기술을 소개한 후 수요기업들과 1대 1 미팅도 진행했다.

산업부는 내년 초까지 ‘AI 자율제조 전문기업 디렉토리’를 만든다. 이 디렉토리는 산기평 주도로 생기연·전자연·기계연 등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 산업계가 조사해 작성할 예정이며, AI 솔루션 기업, 로봇 기업, SI기업(시스템 통합) 등 3개 분야별 10개 이내, 총 30개 내의 기업들이 선정된다.

이들 전문기업에는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이 프로젝트는 산업부가 연구개발 자금·금융·컨설팅 등을 제공해 AI로 제조 공정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26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200개까지 확대된다. 올해 사업에는 현대자동차,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이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AI 자율제조 네트워킹 데이’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GS칼텍스, 삼성중공업, HD현대미포, 포스코, 예코프로, 대한항공, 코오롱, DN솔루션즈, 삼표시멘트 등 제조업 대표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향후 선정되는 선도 프로젝트에는 전문기업 참여 여부 등이 평가에 반영되며, AI 전문기업들은 내년부터 1년 기간으로 지원되는 ‘AI 자율제조 미니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AI 전문기업들은 ‘제조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다. 제조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Open AI의 GPT와 같이 광범위한 데이터를 사용해 지식과 패턴이 학습된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을 제조 기업들이 생산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제조에 특화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말한다.

산업부와 생기연·전자연 등 연구기관들은 올해부터 총 100억원을 투입해

제조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2026년부터 제조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제조 기업들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초로 자사의 공정에 특화된 AI 제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와 산기평은 이번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전문 기업들은 자체 보유한 기술과 실제 제조현장에서의 적용효과 등을 수시로 발표할 기회를 갖게 된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AI 자율제조는 우리 기업들에게 선택이 아닌 미래 생존 전략이 되고 있다”며 “AI 자율제조 성공적 확산과 AI 전문기업의 기술력과 역량 강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자카르타 지반 침하, 방조제로 해결 모색

농어촌공사, 인니 홍수·침몰 해결 나서
까리안담 오는 2026년 3월 준공 예정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는 우리나라의 팔당댐과 비슷한 규모의 ‘까리안담’이 자리 잡고 있다. 자카르타 서부 지역 주민들에게 ‘젓줄’로 불리는 이 다목적댐은 인도네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며, 약 2만3000헥타르(ha)에 달하는 농경지에 관개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높이 65.6m, 길이 516m에 이르는 까리안담은 총저수용량이 3억 1500만톤(t)에 달하며, 2013년 1월 공사를 시작해 202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25일 방문한 까리안담 건설 현장에서는 주요 시설의 준공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였다. 댐 본체 시공은 약 98%가 완료돼 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용수 공급 시설인 짜우야터널은 최종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총사업비 3억3700만 달러(약 4380억원)가 투입된 이 다목적댐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차관 형태로 지원됐으며, 인도네시아 반텐주와 자카르타 서부 지역에 생활용수 공급, 홍수 조절, 전력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다목적댐 설계 검토, 입찰 지원, 공사 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반텐주 지역에 위치한 까리안 다목적댐 전경. /김대환 기자

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댐 건설을 총괄하는 최낙원 농어촌공사 까리안담사업소 단장은 “댐 건설이 완료되면 자카르타 지역의 부족한 생활용수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농경지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농어촌공사는 1967년부터 현재까지 35개국에서 169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농업과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기술 컨설팅 용역을 수행해 왔다. 해

의 기술지원 사업의 시작은 베트남 주월 농업사절단 파견(1967년) 당시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이후 대부분의 사업은 개발도상국 경제협력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한 프로젝트에 농어촌공사의 전문가들이 현지에서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인도네시아에서 1983년 사무소를 개소한 이래 사업 발굴과 수주, 정부 정책 사업 지원, 농업 협력 사업 발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인도네시아 기업등록청에 대표사무소를 등록하고 공공주택사업부로부터 건설 분야 기술 용역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 1983년부터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에서 관개시설, 농업 개발, 습지 개발, 지하수 관리, 마을 개발, 홍수 조절, 댐 설계 및 감리, 관개 현대화, 개보수 등 총 60개 사업을 수행하며, 약 112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13개의 강이 모이는 델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저지대 지역에서는 과거부터 지속적인 홍수 피해가 발생해 왔다.

농어촌공사는 자카르타의 침수위험을 막기 위해 ‘자카르타 대방조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세종=김대환 기자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주민과 소통

환경부, 부산지역 주민 공청회 개최

환경부는 오는 11일 부산 연제구 부산광역시청 1층 대강당에서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부산지역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에서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설명한다. 최승현 부산대학교 교수 주재로 지역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해 발표 및 토의를 진행하고 방청객의 의견청취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금정산, 백양산 및 낙동정맥 생태축을 중심으로 국립공원 지정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를 위해 사찰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조사 결과, 금정산에는 멸종위기종 13종을 포함해 총 1782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기암과 습지 등 60곳의 자연경관 자원이 확인됐다. 국가지정

문화유산과 지방지정문화유산 등 총 105점의 문화자원도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존 23개 국립공원 중 북한산국립공원(115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환경부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마련했다. 부산지역은 지난달 25일부터 지형도면 및 지적도 등 공원계획 관련 내용의 공람을 시작했다. 해당 내용은 오는 31일까지 부산광역시 및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부산·경남의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우리나라 주요 광역도시권은 모두 국립공원을 보유하게 된다”며 “부산시민, 경남도민이 원하는 국립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럼피스킨 방역 미흡 농가에 ‘처벌 강화’

농식품부, 보상금 삭감·과태료 부과

올해 럼피스킨이 발생한 소 사육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7개 시·도 19개 시·군 소재 한우 및 젖소 사육농장에서 총 23건이 발생했다. 럼피스킨이 최근 발생한 소 사육농장 23호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 또 21호 농가에서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백신 미접종을 비롯해 소독 미실시, 신발소독 미실시, 출입기록 미실시, 차량소독기 미실시, 소독설비 미실시 등이다.

1~23번째 사례 가운데 백신접종 명령 위반이 7건이었다. 또 출입기록부 미기록 9건, 신발소독 미실시 2건, 차량소독기 미실시 1건, 소독설비 미실시 1건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가별로 살처분을 실시한 개체에 대한 보상금을 최소 5%에서

최대 30%까지 감액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상금 감액과는 별개로, 일부 농가(12호)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과태료(2150만원) 부과했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방역대책 추진과 함께 농가 스스로 철저한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발생 농가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보상금 감액,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럼피스킨병은 모기·침파리 등 흡혈 곤충(감염충)이 옮기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증상으로, 피부 또는 점막에 작은 결절이 생긴다. 감염 소는 우유 생산량 급감, 가축 손상, 송아지 유산, 수소 번식능력 저하 및 살상 등을 보인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다중시설 실내·외 공기질 정보 활용 확대

환경부, 실시간 정보 확인 가능

정부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계기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환경부는 오는 11일부터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 가능했던 ‘지하역사 실내 초미세먼지(PM-2.5) 정보’를 에어코리아(대기환경정보 실시간 공개시스템)의 누리집과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역사의 실내 초미세먼지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초미세먼지

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초미세먼지 고농도가 발생할 수 있는 겨울철에는 외부 대기 중의 초미세먼지 농도와 지하역사의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함께 확인해 개인의 건강관리에 힘쓰는 등 활용도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자들이 각 시설의 특성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적 관리 안내서’도 배포한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